

이정규 광주FC 감독 “수적천석’ 증명하는 시즌 보낼 것”

K리그1 개막 미디어데이

선수단 끈기·조직력 강조·전지훈련서 시스템 정립
주장 안영규 “매년 우려... 경기력으로 뒤집을 터”



감독 이정규

“수적천석(水洩穿石)의 각오로 올 시즌을 증명해내겠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새 사령탑 이정규 감독이 K리그1 2026시즌 개막을 앞두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라운드를 열심히 누비며 구단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각오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6 개막 미디어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K리그1 12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 200여명의 팬 등이 참석했다. 광주에서는 이정규 감독과 주장 안영규가 구단 대표로 자리해 시즌 목표와 각오를 공유했다.

광주는 지난 시즌 역대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무대에서는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역대 시·도별 구단 중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건 광주가 최초다. 또 코리아컵에서는 구단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약재에도 K리그1 3년 연속 잔류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런 광주가 올 시즌에는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광주의 황금기를 이끈 이철호 전 감독

이 수월삼성으로 떠났다.

그의 뒤를 이은 건 이정규 감독.

이정규 감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시즌 동안 광주FC 수석코치를 역임. 광주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적임자였다.

하지만 구단 사정이 좋지 않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고, 주축 선수 이탈까지 겹치는 약재를 맞았다.

특히 1982년생인 이정규 감독은 K리그1 12팀 중 최연소 감독이다.

코치 경력은 많지만, 1부 리그 감독직은 처음이기도 하다. 이에 초보 감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는 이러한 여론을 뒤집고 증명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처음으로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이정규 감독은 새 시즌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수적천석(水洩穿石)’을 제시했다. 이 감독은 “구단의 규모나 이적시장에서의 여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선수들의 땀방울이 모이면 결국 큰 바위를 뚫을 수 있다고 믿는다. 끈기와 조직력으로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장 안영규 역시 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영규는 “광주는 매년 걱정과 우려 속에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결과로 그 시선을 바꿔왔다”며 “올해도 경기력과 성적으로 평가를 뒤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는 비시즌 기간 태극 후아인과 경남 김해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광주만의 축구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했다.

올 시즌 목표에 대해 이정규 감독은 “파이널A 진입이 1차 목표”라고 명확히 했다. 목표 달성 시 공약에 대해서는 안영규가 “파이널A에 진입하면 감독님이 사비로 맥북을 구매해 팬들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하겠다고 하셨다. 저는 에어팟을 추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감독은 기대되는 선수에 대해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면서도 “굳이 한 명을 꼽자면 신창무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안영규는 “올해 합류한 신인 수비수 김용혁의 성장에 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광주FC는 오는 3월 1일 제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SKFC와 원정 경기를 치르며 2026시즌의 막을 올린다. 이어 3월 7일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고 본격적인 시즌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주장 안영규

전남체육중·고 테니스팀 창단...인재 육성 기반 다졌다

초·중·고 연계 시스템 구축
전남형 스포츠 인재 선순환
유인숙 전남테니스협회 회장
3000만원·훈련용품 지원도



전남테니스협회는 최근 목포 예술웨딩컨벤션에서 전남체육중·고등학교 테니스팀 창단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전남 테니스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전남체육중·고 테니스팀이 공식 창단했다. 2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테니스협회는 최근 목포 예술웨딩컨벤션에서 전남체육중·고등학교 테니스팀 창단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전남 테니스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번 창단은 단순한 학교 운동부 출범을 넘어 유망주 조기 발굴부터 전문선수 성장까지 이어지는 ‘연계육성 체계’ 완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초등학교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지역 유망주들이 중·고교 진학 시기에 팀 부재로 타 지역으로 진출해야 했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숙 전남테니스협회장은 이번 창단에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이기도 한 유 회장은 창단 장학금 3000만원을 쾌척한 데 이어 라켓과 공 등 300만원 상당의 훈련용품을 추가 지원했다. 또 선수들이 졸업할 때까지 분기별 훈련용품을

지속 후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히며 탄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남도체육회 역시 앞으로 종목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전남형 스포츠 인재 선순환 구조 정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인숙 전남도테니스협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고향의 품에서 마음껏 라켓을 휘두르며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창단을 계기로 인재 발굴

부터 전문 육성, 전국·국제무대 진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협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전남체육중·고 테니스팀 창단은 전남 스포츠 인재 육성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중·고 연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구축해 전국 무대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전남형 엘리트 육성 모델 완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선수단, 전국동계체전 메달 사냥 ‘순항’

금 3·은 1·동 3 획득...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등 활약

전남 선수단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첫 날부터 금맥을 캐며 순항하고 있다.

전남은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대량의 메달이 나왔다.

조다은(전남체고 1년)은 평창 알펜시아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여고부 클래식 5km에서 16분03초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조다은은 이로써 올해 고등부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전다경(전남체고 2년)은 16분38초8의 기록으로 골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은메달을 따냈다.

임준범(전남체고 2년)은 남고부 클래식 10km에서 29분49초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윤주(전남체중 1년) 또한 여중부 클래식 5km에서 16분41초1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하며 전남 선수단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찬우(화순초 6년)는 남초부 클래식 2.5km에서 9분17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시율(화순초 6년)은 9분59초로 동메달을 건졌다.

바이애슬론에서도 금메달이 나왔다. 티모페이 랍신은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스프린트 10km에서 24분42초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 달성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대회 첫날부터 투혼과 집중력으로 값진 성과를 만들어낸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동계체전을 통해 전남체육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전국 무대에 확고히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남초부 1위 김찬우

광주FC, 시민주주 서비스 개편...편의성 강화

안내 문자 알림톡 전환...홈경기 4회 예매권 증정



프로축구 광주FC가 시민 주주들의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다.

광주FC는 2010년 창단 당시 광주시와 지역 기업 참여와 함께 시민주 공모를 진행해 총 3만9000여명의 주주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주주들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나, 구단이 제공하는 혜택 안내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에 광주FC는 오는 3월 7일 개막을 앞두고 주주 명부의 현황화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구단은 우선 안내 메시지의 전달 방식을 개선한다. 스팸 분류 등으로 미전송되던 문자(SMS) 안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환해, 주주들이 혜택과

정보 안내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주 서비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주 정보 확인 및 변경 기능을 통합했고, 홈페이지 아이디 연동을 적용해 주주가 간편 본인인증 후 정보 확인·변경부터 아이디 연동, 홈경기 티켓 예매까지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FC는 현재 주주들에게 매년 연 4회 홈경기 관람이 가능한 예매 코드(주주 인증 기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FC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주주 인증 이후 예매 과정까지의 연결성을 높여, 주주 혜택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창단에 힘이 돼 준 시민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WBC 대표팀 28일 ‘완전체’...빅리거들 오사카로 집결

이정후와 한국계 빅리거 27일 합류...김혜성은 28일 가세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 출격을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의 ‘완전체’ 결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한창 시범경기를 치르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은 WBC 사무국이 마련한 공식 평가전이 열리는 일본 오사카로 합류할 참이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 현 가테나의 가테나 구장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연습경기에 앞서서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27일에 오사카로 합류할 예정이고, 김혜성 선수만 MLB 시범경기를 한 경기 정도 더 뛰고 해서 28일에 올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MLB 시범경기를 치르는 대표팀 선수는 주장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셰이 윌트컴(휴스턴 애스트로스), 제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고우석(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A 탈리도 머드헨츠), 데인 터닝(시애틀 매리너스 산하 트리플A 터코마 레이니어스) 6명이다.

이정후와 김혜성은 대표팀에서 각각 주전 중견

수과 2루수를 맡을 전망이다. 고, 타자인 윌트컴과 존스는 각각 내야와 외야 한 자리를 소화한다.

터닝은 선발 혹은 선발 투수 바로 뒤에 등판해 긴 이닝을 던질 예정이며, 고우석은 불펜을 지킨다.

대표팀 본진은 지난 16일부터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KBO리그 구단과 4차례 연습경기를 치렀고, 26일(삼성라이온즈)과 27일(kt위즈) 2경기를 남겨뒀다. 대표팀이 오키나와 캠프를 마치고 28일 오사카로 건너가면 WBC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될 30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사카에서는 다음 달 1일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안방인 교세라돔에서 공식 훈련을 한다.

이후 호주(5일), 일본(7일), 대만(8일), 호주(9일)와 WBC C조 조별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

한국 조별리그 일정	개최지	일본 도쿄 도코로
3월 5일 오후 7시	한국	한국
3월 7일 오후 7시	한국	일본
3월 8일 오후 12시	대만	한국
3월 9일 오후 7시	한국	호주